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지속가능 발전 정책 빛났다

2024 대한민국 경영대상 ‘지속가능 부문’ 수상 영예 여수만 르네상스 발전계획·미래신산업 발굴 등 공로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다양한 복지 정책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는 4일 “제9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 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주최하고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경영

대상은 뛰어난 행정 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해당 분야별로 시상하는 제도다. 민선 8기 여수시는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통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시는 평가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생물자원활용 산업기술 및 수소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신산업 발굴 ▲국제컨벤션 센터 건립 등 마이스산업 육성 ▲여수문화재단 설립과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추진 등 문화도시 추진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전국 1위(대통령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지역일자리 공시제부문 최우수상) 등 8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포상 사업비로 22억4천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7년간 진척 없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문제를 지역 정치권·시민 등과 해결함으로써 올해부터 문을 열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가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는 물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여수시가 제9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 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여수시 제공>

‘골든타임 확보’...순천시, AI앰블런스 시범 운영

국비 10억 확보...중증도 분류 등 최적 이송병원 선정

순천시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 시범적용 지역 선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2년간 AI앰블런스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앰블런스)은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시스템을 구축, 상호 AI응급서비스를 표출할

으로써 중증도 분류 및 응급실 포화도 분석 등에 따라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환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최적의 치료 계획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시는 전남소방본부, 전남도와 협조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로 인

해 전남도, 전남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6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전남 순천’ 응급의료 진료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전남순천’ 응급의료 진료권이 며, 4대 중증환자 이송률이 높은 순천·여수·광양·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총 20대(순천 8대·여수 8대·광양 4대)의 AI앰블런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순천한국병원, 순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여수전남병원, 광양서울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수행기관인 AI앰블런스 사업단과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해 시범지역 확대·보급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AI앰블런스 시범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화순군, 상반기 구제역 예방 집중 시행

소 2만7천664두 등 대상...소규모 농가 무상 지원

화순군은 4일 “관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 일제 접종은 소 사육 농가 606호 2만7천664두, 염소 사육 농가 88호 1만1천963두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임신 말기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등은 예방 접종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은 소규모 농가의 경우 보조금 100%로 전액 무상 지원한다. 소규모 사육 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는 공수가 직접 접종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자가 접종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예방 접종을 위해 일제 접종 4주 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소 80%, 염소 60%)인 농가에 재접종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축산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우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도 적용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이 누락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광양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 49세 이하 대상...재혼 부부도

광양시는 4일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 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

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부부이다. 시는 신청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 기간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할 땐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사진은 한약족욕 등 마음치유센터 프로그램 모습.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 선정

체성분·스트레스 검사 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4일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전남도관광재단은 매년 전남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웰

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장흥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포함한 무안 하늘별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 3개소를 선정, 관광 전문가 컨설

팅, 웰니스 팸투어 운영 등을 지원한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내에 위치한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지역민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남도, 장흥군, 원광대학교, 국립나주병원 4개 기관이 협약 후 설립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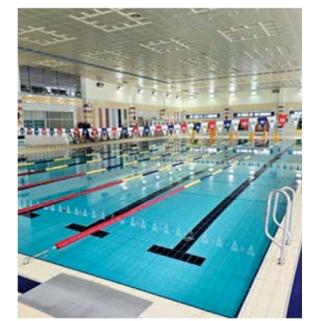
(장흥군 제공)

이다. 체성분·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한약족욕, 뜸 치료, 헤어스파, 온열테라피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올해부터 전남도가 세계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하는 만큼 웰니스 관광 기반을 다져 글로벌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

‘전남체전 대비’ 장성군, 체육시설 정비 추진

도비 8억5천만원 확보...실내수영장 등 8곳

장성군이 2025 전남체전 개최 준비의 일환으로 체육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4월 장성군에 따르면 실내수영장(사진), 위라밸돔구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등 8개소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오는 7월부터 5월1일까지 20일간 휴장한다. 위라밸돔구장과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은 정비 일정이 정해 지는 대로 휴장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장성군은 전남체전 대비를 위해 지난해 종목별 경기장 실태를 조사했다.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 병행했다. 올해 도비 8억5천만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실내수영장, 위라밸돔구장, 상무평화공원 축구장을 비롯해 국공장 ‘백학정’, 장성호 조정경기장, 삼계테니스장 등 총 8곳을 정비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체육시설 휴장으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내년부터 대규모 체육행사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2025년 4-5월 제6회 전남도체육대회, 제33회 전남도장애인체육대회에 이어 2025년 10-11월 전남도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전국 최초 향촌변호사 운영 ‘호응’

매주 월요일 대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담양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위촉한 ‘향촌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담양군은 4일 “지난해 12월부터 ‘향촌변호사’를 위촉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현재까지 총 11회 상담(매주 월요일)을 진행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대면 법률 자문을 제공해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적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 담양은 지역에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제도나 법률상담터 등이 있지만 제도적 한계로 대면 상담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군은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통을 덜기 위해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 대면 무료 법률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향촌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군민들은 쉽게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군민이 겪고 있는 법률 분쟁 예방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담은 담양군민이면 누구나 민사, 형사, 가사 등 생활 전 분야에서 1대1 대면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만 쓰면 사전 일정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형식적인 상담이 아닌 충분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3건만 상담을 진행한다. 김혜인 변호사는 “지난 4개월 동안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 등 최선을 다해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